



Web Contents



2024년 05월 02일 10시 13분

10월 14일 낭독극장 안내

2017.10.11 조회수 258 등록자 목포문학관

목포문학산책 낭독극장 안내

10월 14일(토) 오후 2시 / 수필가 김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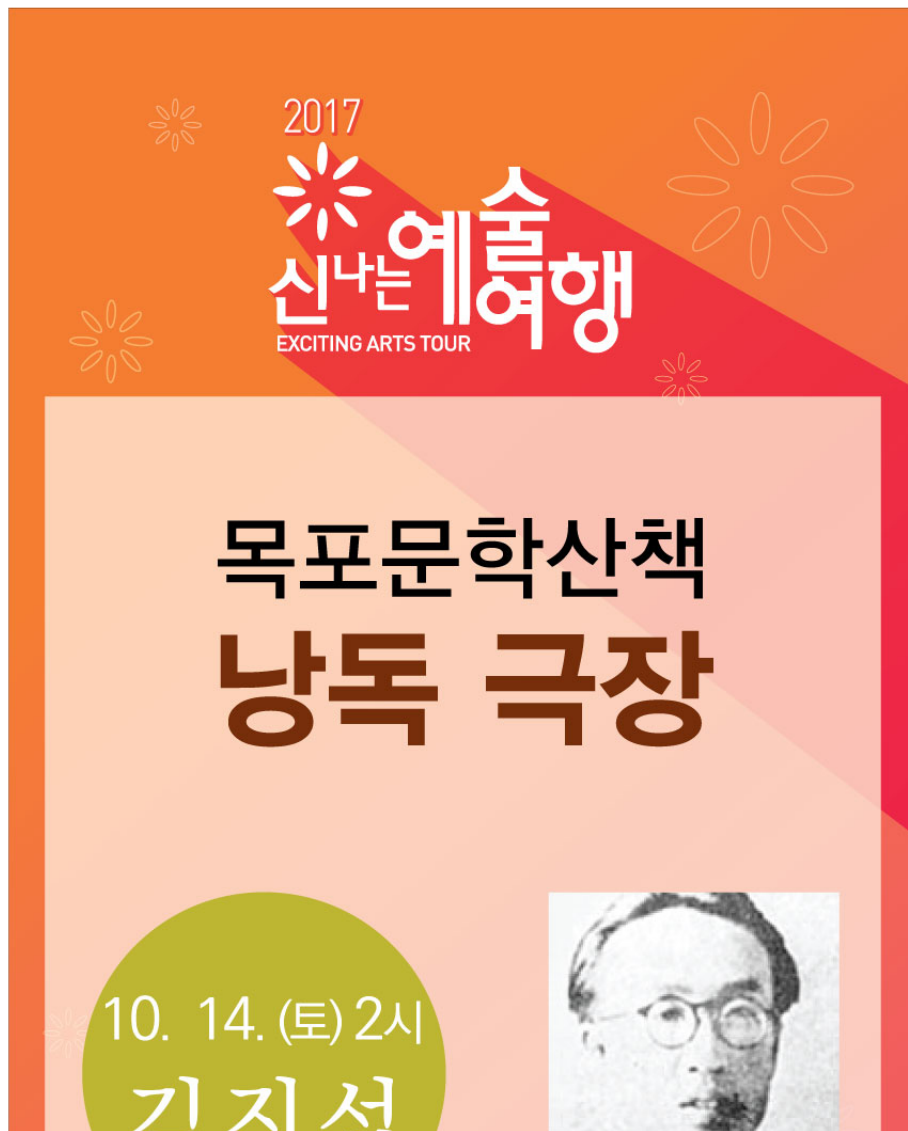
진행 : 유현(시조시인)

낭독 : 정권숙, 김선우(극단 새결)

해설 : 김영진(목포과학대 교수)

- 낭독 작품 「백설부», 「생활인의 철학」, 「모승론」 등


대표작으로는 「백설부», 「주부송», 「모승론», 「교양에 대하여», 「수필의 문학적 영역」 등이 있다. 이 중은 한국수필의 기틀을 잡는 명문장이자 그의 문학성을 가장 잘 드러낸 글로 꼽힌다. 그의 수필은 일상의 생활을 철학의 차원까지 끌어올렸으며, 또 그것을 유려하고도 꾸밈없는 문체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신문학 이후 문필인들의 여기(여기) 정도로나 여겨왔던 수필을 본격적인 문학의 장르로 끌어올림으로써 한국수필문학의 기틀을 다진 비조(비조)로 불린다.



2017
신나는 예술여행
EXCITING ARTS TOUR

목포문학산책
낭독극장

10. 14. (토) 2시
김지선



(<http://www.mokpo.go.kr>)

진행 | 유헌 (시조시인)

낭독 | 정권숙, 김선우 (극단 새결 배우)

☞ 낭독 작품

『백설부』, 『생활인의 철학』, 『모송론』

• 해설 : 김영진 (목포과학대학교수)

대표작으로는 <백설부>, <주부송>, <모송론>, <교양에 대하여>, <수필의 문학적 영역> 등이 있다.

이 중 <수필의 문학적 영역>은 한국수필의 기틀을 잡는 명문장이자 그의 문학성을 가장 잘 드러낸 글로 꼽힌다. 그의 수필은 일상의 생활을 철학의 차원까지 끌어올렸으며, 또 그것을 유려하고도 꾸밈없는 문체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신문학 이후 문필인들의 여기(餘技) 정도로나 여겨왔던 수필을 본격적인 문학의 장르로 끌어올림으로써 한국수필문학의 기틀을 다진 비조(鼻祖)로 불린다.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문화재단
문화나눔

주관.  목포시(목포문학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복권위원회

장소. 목포문학관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배너-낭독극장-김진섭 배너.jpg](#) (671 hit/ 315.6 KB) ↓

[미리보기](#)

목록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MokPo - Si
Web Contents

